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AMCF 선교협력위원회

M · S · O

Mission Support Organization

MSO 헌신예배 “다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홍석훈 목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셨던 임원수련회

ACCTS, FCMM Meeting(미국), Accts MMI(영국), 중국 선교현장 방문

제3차 중앙아시아 기독교인집회 및 타지키스탄 선교 방문

파라과이 대통령 영부인 간증

신약(부활)에서의 선교의 기초 험버트·케인(J. Herbert Kane)

'07년도 MSO 주요사역

통권 10호

2007 NO. 2



“다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눅18:22~30)

- 홍석훈 목사(국군중앙교회 담임) -

1870년의 140여 년 전 헬리 그린이라는 여자는 뉴욕의 은행가인 월스트리트의 가장 큰 부자인 동시에 가장 지독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30살에 9억 달러의 유산을 상속받아 그 후 50년 동안 주식, 채권, 그밖에 온갖 수단을 다해 100배로 불러 900억불의 재산을 가진 여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항상 채권과 증권을 허리에 차고 배고플 때는 마른 빵을 뜯어먹는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81세에 우유값을 덜 내려고 우유배달부와 싸우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세상 떠날 때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으며 월스트리

두워지고, 가정도 깨어지고 국가는, 세상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유양식에서 존재양식으로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소유 존재 쪽으로 기울러지기 때문에 인생이 비참해지고 사회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이란 인간의 존재양식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소유로부터 얼마나 자유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사람됨을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우리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며 주님께 왔습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좇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은 갈등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왔다가 문제만 안고 근심거리만 안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돌아가는 것을 보시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에 약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러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은 처음부터 자기를 부정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그물을 두고, 자기 직업을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생업, 소유, 직업, 가정, 친척, 친구도 버리고 주



님을 좇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실패했습니까? 모든 것 다 버렸으나 자기를 부정하지 못했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신앙고백을 칭찬하셨고 천국열쇠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만류함으로 “너는 나를 넘어서게 하는 자”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고 하나님의 방법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 이렇듯 베드로는 자기 십자가를 질 생각을 못하여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가 비참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창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죽이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집종이 갈릴리 사투리 쓰는 베드로에게 ‘갈릴리 사람이냐’고 물었는데 ‘아니다’ 하며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까이 오신 지금은 회개하고 뉘우치고 부끄러워합니다.

예수님께서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트의 악녀라는 별명만 남겼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이 여인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To have or To be”,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에서 생존양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람에게는 소유양식과 존재양식이 있으며 이것이 삶의 양식이다”라고 말했지요. 사람이 소유양식으로 기울러져서 무언가를 자꾸 끊임없이 내 것으로 만들고 소유함으로써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도 비참해지고 사회도 어

말씀하십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정말 사랑하면, 자기부정이 이루어지고,
 자기 존재 다 사라지고 자존심을 세우지
 않습니다. 명예, 모든 것 다 먹구름처럼 물
 러갑니다.

AMCF, MSO 귀한 일꾼들 세상적인 것 다
 버리고 이 일에 헌신한 것은 삶의 소유의
 식 버리고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
 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내
 것을 바쳐서 선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
 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
 님을 따를 때 천국의 상급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
 으면서도 여전히 불평, 원망하며 주님 주
 신 사명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헌신하지 못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MSO 헌신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
 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양식을 소유
 에서 존재로 바꾸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삶
 을 살게 해 주옵소서.
 AMCF, MSO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
 시는 세계선교의 비전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도 열어주시고 돕는 일꾼들도 보
 내주옵소서.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 군대
 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역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
 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2007 감사와 감격으로 올려드린 MSO 헌신예배

MSO는 국군중앙교회 대성전에서 '07. 3. 4(주일) 14:00에 헌신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

설교 홍석훈 목사, 사회 이준 장로, 기도 이갑진 장로, 축사 이필섭 장로, 영상을 통한

MSO 사역보고, 국군중앙교회 여성선교합창단과 MSO 임원들이 찬양을 드렸으며

국군중앙교회 성도 및 MSO임원 400여명이 참석하였다.

예배 후 다과를 나누며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친교시간을 가졌다.

MSO 헌신예배는 내내 성령 충만하였고 목사님을 통해서 “다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도전, 헌신, 열정으로 채우셨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지상명령의 순종과 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였다.





2007. 1. 12(금) 10:00~1, 13(토) 14:00 간 광림수도원에서 MSO 임원(부부동반), 국군중앙교회 성도들, KMCF 임원 등 약 8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수련회는 2006 MSO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적 무장을 새롭게 하고 세계 군선교사역의 공감대 형성과 소명 의식 그리고 친교를 통한 공동체 결속을 다지면서 2007 사역내용을 숙지하였다.

세부시간계획은 제1부 개회예배(설교 권오용 목사)를 드린 후 주 선교대상국의 선교환경을 알기위해 김한식 장로를 통해서

동남아 선교전략과 AMCF 회장인 이필섭 장로의 Vision 선포를 통해서 세계 군선교의 목표가 제시되었고 제 2부에는 '06 사역내용과 '07 사역계획, 재정현황을 영상과 함께 보고하였으며 그리고 '06에 특별히 MSO사역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분들의 사역활동과 개인에게(자원봉사자의 기쁨: 오형재 장로, 후원섭외요령: 정재순 권사, 네팔 MCF 설립지원: 박경진 집사, 개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강한규 장로, 최영관 장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나누었고 이어서 국가와 군과 세계군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마지막으로 국별 토의(여성국 별도) 시간을 가졌다.

제3부에서는 새벽기도(설교: 허성화 목사)를 시작으로 MSO의 나아갈 길(손창문 목사)이라는 특강과 전일 국별 토의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의 개진이 있었다.

마지막 인사말로 이준 위원장은 임원

수련회를 통해서 MSO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헌신하는 임원들이 되자고 강조하였다. 중식 후에는 폐회예배(설교: 김홍태 목사)를 드린 후 수도원 광장에서 전원이 손을 잡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윤재관 목사)를 올림으로서 모든 일정을 마쳤다.

비둘기같은 성령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신 임원수련회는 시간 시간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고, 순서 순서마다 먼저 기도하고 발표하였으며, 개인 간증시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개함으로써 서로 큰 도전을 받았다. 2007년에는 여성부가 국으로 확대됨으로서 선교사역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크게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수련회에는 현역 임원부부들이 많이 참석하여 AMCF, MSO의 미래가 한층 밝아 온다.

비둘기같은 성령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신 임원수련회



AMCF 회장, MSO 임원들 각종 회의에 참가하다.

ACCTS, FCMM Meeting에 이필섭 장로, 이갑진 장로 참석

-이필섭 장로(AMCF 회장)-

이필섭 장로, 장문석 권사는 LA의 '07. 3. 14 ~ 18 한인교회 방문, 덴버에서 3. 19 ~ 25간 ACCTS Staff Meeting, ACCTS, Accts MMI, MSO, AMCF 대표자 회의 참석, 한인교회 방문, 콜로라도 스프링에서 3. 26 ~ 28 간 FCMM 회의 참석, 3. 29 ~ 4. 3 간 시카고 지역 한인 목회자 군 선교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이갑진 장로(MSO부위원장)는 ACCTS Meeting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였다.

ACCTS Staff Meeting은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개최되었고, ACCTS 참모 40여명과 AMCF 회장, Accts MMI 회장, MSO 부회장 그리고 Cal Dunlap과 북미지역 차기 부회장으로 추천된 그라나다의 Nestor Ogilvie 중령(예) 부부가 참석했으며 AMCF 현황은 이필섭 장로, MSO 현황은 이갑진 장로, Accts MMI 현황은 Homfray Vines에 의해 소개되었다. 각 참모들은 지난 6개월간 실시한 사항과 다음 회의까지의 앞으로 6개월간 실시할 사항을 문서로 제출하여 ACCTS의 전체 활동을 잘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게 했으며 군을 통한 지상명령의 수행에 모두가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ACCTS Staff Meeting 후에 AMCF, ACCTS, Accts MMI, MSO 4기관의 대표들의 토의된 주요 현안들

-SC 2004 이후의 사역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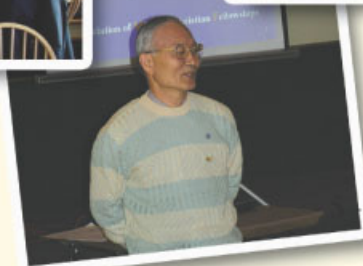
- 가) ACCTS: AELT, 화해사역, 여성사역, 윤리적 리더십, 재해지원, 군목 Interaction
- 나) Accts MMI: 결혼사역, TMTI, Flame International, 아프리카 사무국
- 다) MSO: 중앙아시아 사역, 캄보디아 영어캠프, 중남미 영어캠프, MEO 프로그램, 문서선교, 재해지원
- 라) AMCF: MCF의 증가, 지역대회, AMCF VP 교체
- 마) 기타: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교기관 간의 협력, 첩보의 원활한 흐름, 지도자의 개발, 재난구조 활동, 자원개발, SC 2004 결과검토, SC 2009, 2014 세계대회

FCMM 회의

Colorado Springs의 Navigator 본부가 있는 Glen Eyrie Conference Center에서 3일간 개최되었는데 전체 회의에서는 미군이 오늘날 어려운 과제로 직면하고 있는 전쟁터에서 겪는 각종 정신적 고통과 그 후유증에 대한 문제가 주로 다뤄졌고, 국제 문제는 세계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군인 및 그 가족들을 위한 협력구조 문제와 모슬렘 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내적, 외적 상황에 대한 이해에 필요한 내용들이 토의되었다.

AMCF 비전이 소개되었고, 이의 성취를 위해 각 기관이 협력키로 하였다. MEAK에서 이학수 사무총장이 참석한 시카고 지역 한인 목회자 군선교 세미나는 주로 MEAK의 사업계획에 대한 토의와 세계 군선교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군을 통한 주님의 지상명령이 추진되고 있는 지구촌 곳곳의 생생한 현장뉴스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헌신자들이 예수 안에 하나 된 모습으로 진정한 사랑을 나누면서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듣고 보면서 군선교를 축복해 주시고 도우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었고 새로운 다짐의 기회였다. MSO의 형제자매들과 MSO를 돕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덕동 장로 영국 Accts MMI 2007 수련회에 참가



2007 Accts MMI 수련회가 2, 10(토)~11(일)간 영국 솔즈베리 (Salisbury, Sarum College)에서 Accts MMI 간부, 후원요원, 동아프리카(케냐, 우간다) MCF지도요원, ACCTS, MSO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사역현황과 문제점 등을 발표하고 기도하며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모임을 가졌다.

MSO대표로 영국 체류 중인 강덕동 장로(MSO 부위원장)가 참석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MSO 비전"(The Vision God has given MSO) 이라는 제목으로 MSO를 소개하였고 그들은 놀라움과 반가움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본 수련회는 각 지역 Field Director들이 실행하고 있는 사역들과 문제점들을 보고하고, 제기되는 Issue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간청하는 기도와 Fellowship중심의 수련회였으며 특히 동아프리카 (케냐, 우간다, 브룬디 등)는 북쪽으로부터 남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슬람교 때문에 그 나라들의 MCF들이 크게 위협 받고 있음에 대한 기도와 대책을 의논하는 Topic이 중심을 이루었다고 한다.



오형재 장로 중국 선교현장 방문

MSO 오형재 장로(사이버대학 팀장)는 '07. 2. 16-24 어간 중국 서안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중국은 가장 가까운 나라이며 방대한 국방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우리 MSO 입장에서는 중국 MCF를 설립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며 사명임을 부인 할 수 없다. 미국 ACCTS가 오래전부터 접촉하고 있지만 아직도 MCF가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형재 장로는 한인선교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한 고급 군 간부(예비역 공군 대령)가 믿음의 사람임을 알고 이분을 만나 MSO의 MEO Program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고 기타 영어캠프와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MCF 회원들을 접촉함으로써 전도하여 중국 MCF 설립에 기여하는 큰 꿈을 갖고 있다.

오형재 장로는 방문소감으로 아직도 현역 장교들에 대한 공식적인 전도는 불가하며 그들의 외국여행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확인하면서 만났던 고급간부를 MEO Program에 참석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영어/컴퓨터 교육문제도 적절한 시기에 서안에서 실시하여 MCF설립의 교두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였다.

제3차 회교권 알마티 기독교인집회 및 타지키스탄 선교 방문

- 김영덕 장로(MSO 사무총장) -



저희 부부(김영덕 장로, 허성화 목사)는 구정을 기해서 2주간 중앙아시아지역(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기독교인회(MCF) 결성(2005. 2. 26)이라는 귀한 첫 열매를 MSO에게 허락하시고 그 결성현장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함께하심을 몸소 체험했었던 감격스러운 곳이었고, 타지키스탄 군선교사로(2002년) 머물렀던 지역방문이어서 더욱 감회가 깊었습니다.

국경도시 카자흐스탄 우차랄 지역

제레바 지저리(생명나무)교회 방문 (2. 21~22)

알마티 동북방 550km 중국접경 변방지역에 위치한 인구 15,000 여명이 거주하는 도시의 유일한 개신교 생명의 나무교회(아갈크바 스벨트라나 여목사, 성도 70여명) 수요일예배에 강사로 참석하기 위해 알마티에서 새벽에 출발하여 11시간을 달려 오후 6시에 겨우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도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설립되었고 7명의 군인이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군인이 기독교 신앙 지키기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작은 예배 처소에서 한 현역군인이 찬양을 인도하며 또 다른 군인이 드림을 치고 여기저기 군복을 입고(7명) 예배드리는 진지한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으며 참으로 귀한 위로와 격려의 만남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 자민족이 분열된다는 생각으로 시골일수록 무슬림의 탄압이 극심하여 과거 200여명의 신자가 70여명으로 줄었고 현재 교회 지도자들은 금식하고 있는 등 신앙생활에 있어서 처절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제3차 중앙아시아 지역대회개최 (2. 24~25)

장 소: 카자흐스탄 알마티 새생명교회

참가대표: 카자흐스탄 15명, 키르기스스탄 6명

우즈베키스탄 4명, 러시아 3명

한국 3명, 계 31명

진행내용: 경배와 찬양, 기도, 설교 및 간증 (강태원, 허성화 목사, 김영덕 장로)

국가보고, 성만찬, 선물교환

중앙아시아 각국 중요상황 보고

- 회교권국가에서 현역들의 신앙생활 매우 어려움(공통)
- 교회이름으로 군부대 방문 불가(공통, NGO이름으로 방문가능)

- 각국 MCF회장 집에서 매주 소그룹 모임(5~10명)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민간 현지 교회지원과 협조 하에 신앙생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 민간교회에서 군선교를 위한 기도회 실시(우즈베키스탄)
- 특수한 지역에서 활발한 믿음생활(카자흐스탄)
- 무슬림들의 교묘한 탄압 자행(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신앙 활동전개

타지키스탄 방문(2. 13~20)

모스크바에서 만났던 타지키스탄 군장교(중위)를 만나 본 결과 신앙생활의 여러 어려움(지휘관이 강한 무슬림이어서 기독교인인 것 알면 핍박)과 외로움, 군 생활에서의 여러 갈등(우리 도착한 날 한 병사가 유리조각을 삼김으로서 자해한 사건)을 호소하여 함께 예배드리면서 상담을 통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말씀을 통한 신앙지도를 함으로서 참으로 적절한 시기의 만남이었습니다. 또한 기독교장 2명을 만났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의 모습이 너무 애처러워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타지키스탄 군선교는 거의 불모지임을 재차 확인하였고 믿음의 군인 한사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 영혼들을 방문토록 인도하셨음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방문소감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중앙아시아지역의 각국 MCF는 적극적인 신앙태도, 정기적인 모임, 현지교회와의 협력, 군 선교 방향 모색 등 서서히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가게하시라 씨를 뿌리시고 자라게 하심을 직접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회교권의 교묘한 탄압과 핍박으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와 관심, 후원의 필요함을 느꼈으며 한사람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리고 원거리 전도여행을 통한 형제와의 만남의 큰 기쁨을 맛보면서 사도바울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 기독교인 집회 개최비 400만원 서울영동교회에서 후원

MSO 위원장 동정



· 2. 4(주일에배) 10:30
 '육사화랑대학교' (담임 이재은 목사)에서
 "군인의 길과 Leadership"의 간증설교

· 2. 7(수) 19:30
 '한밀교회' 대성전에서 "한반도 및 국제정세를
 통해 본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의 제목으로
 간증설교

· 2. 11(주일) 19:00
 제 1175 야공단 '믿음찬 교회' (손창문 목사 담임)
 "간증설교 및 세계 군선교 소개"

· 3. 11(주일) 15:00
 '봉신교회' (이강원 목사, 관악구 봉천동 소재)
 "간증설교 및 세계 군선교 소개"

· 3. 12(월) 11:00 / 18:00 (2회)
 '마산 창신대' 학생 채플시간
 "택함 받은 자의 사명" (요15:16) 특강

MSO 방문자



호주 Gold Coast 한인교회 담임목사 방문

2. 2(금) 16:00~19:00 양병규 목사
 (호주 Gold Coast 한인교회 담임목사)
 사가 방문하여 MSO 세계군선교 현
 황보고와 AMCF 태평양 지역참가/후원문제를 토의하였다.

자이툰 부대 황중선 사단장 방문



2. 8(목) 10:00 자이툰 부대 황중
 선 사단장이 출장 중에 MSO 방문
 하여 자이툰 부대 선교활동상황과
 생생한 이라크 현지소식을 전하였
 다.

"자이툰부대교회는 250여명(새벽
 기도 인원 200여명)이 주17회 종교활동(새벽기도, 화요찬양
 예배, 수요일영성예배, TEE 성경공부) 거의 매일 교회활동을
 하며, 쿠르드족 교회인 쿠르즈만교회 (360명 교인)에 월
 \$2,000 지원하고 있다.
 자이툰 부대 내에서 쿠르드족 대상으로 한글캠프도 운영 중
 이며 자이툰 부대 신앙 및 선교활동은 적극적이고 매우 활발
 하다."고 전했다. 자이툰부대 및 해외파병국군부대를 위해
 서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부르키나파소 황옥곤 선교사 일행 방문

2. 14(수) 12:00~16:00 황옥곤 선교사 (이필섭 회장 부르키
 나파소 방문시 통역 및 안내)외 2명이 MSO를 방문하여 부
 르키나파소 군중감 Gabriel Yemeogo (소령)의 영어캠프 요

청문서를 AMCF 회장에게 전달하였다.
 황선교사를 통해서 선교지의 형편을 알게 되었고 영어캠프
 시행에 따른 현황들을 토의하였다.

네팔 Bharatpur Baptist Church 목사 방문



2. 15(목) 14:00~16:00 Lai Singh
 Gurung 목사(바릿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200여명의 성도, 10개 지교
 회를 두고 있는 침례교회 담임목사),
 김금숙 선교사 등 3인이 MSO를 방문
 하여 그분들에게 세계 군선교 현황을
 소개하고 현 네팔선교환경과 MCF활
 동사항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
 다. 그들은 네팔 MCF사역에 적극적
 으로 지원할 것을 다짐하였다.



네팔에 MCF가 2년전 '05. 11. 18에 설
 립되면서 회장에 선출된 Rana씨가 군 복음화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던 중 과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06. 12. 25) 함
 으로서 공석이 된 MCF회장에 Indra Kumar Basnet이 선출되
 어 MSO에 기도제목을 보내왔다.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신생 네팔MCF를 위해 기도를 부탁한다.

기타소식현황

'07년도 KMCF Interaction 수련회

2. 9(금)~ 10(토) /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기독교
 군인연합회 (KMCF) 주관으로 (MEAK 후원) MCF회원 25~35명
 을 대상으로 한국군 병영 내 귀납식
 성경공부와 대화식기도 확산을 위
 한 2007년도 KMCF Interaction
 수련회가 개최되었다. 이 기간 중에
 MSO위원장 이준 장로는 특강으로
 격려하였다.



2007년도 AMCF Newsletter 발간 지원금 송금

3. 21(수) AMCF Newsletter(영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포르
 투갈어) 5개 국어의 발간비로 US \$5,000을 이갑진 장로 ACCTS
 Meeting 참가차 출국편에 ACCTS에 보냈다.

AF지역 부르키나파소에 PC 및 DVD 탁송

3. 6(화) 중고 PC 10대(KT기준), DVD Player 2대(Ohana 기준)를
 부르키나파소 영어캠프 교육용으로 현지에서 선교활동하고 있는 황
 옥곤 선교사에게 탁송하였다.

중앙아시아지역 타지키스탄에 PC 탁송

4. 10(화) 중고 PC 10대(KT기준) 타지키스탄 기독교인 전도의 접촉
 점을 위하여 컴퓨터 교육용으로 두산베(타지키스탄 수도)에서 선교
 활동하고 있는 이병찬 선교사의 선교관에 설치하도록 탁송하였다.

파라과이 대통령 영부인 간증

'07. 4. 6(금). 12:00 조선히otel 그랜드볼룸에서 숙명여자대학교, 극동방송 여성운영위원회 주관으로 파라과이 대통령 영부인 마리아 글로리아 데 두아르테(Maria Gloria Penayo de Duarte) 초청 여성 지도자 오찬 모임에 박용숙 권사(MSO 위원장 부인), 허성화 목사(MSO 선교실장)가 참석하였다.

인구 85%가 카톨릭이며 농업국가인 이 나라에서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6자녀를 둔 영부인은 그의 간증을 통해 남편과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으면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과 마약중독 어린이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소개하여 큰 감동을 주었다.

영부인 간증내용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3년 전 나는 문제가 없는 행복한 생활을 하였고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교육과 가치관을 물려받았으나 불안과 공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고통과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랑 많으신 하나님,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992년 나는 침례받기로 결정한 후 복음전파의 여성모임의 활동을 시작하여 10년 전 그 그룹의 성경공부를 인도하였습니다. 우리 집은 복음을 위하여 항상 열려있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이 1순위 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무릎 꿇어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문제가 많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과이를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우리 대통령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남편과 함께 저는 "주님만이 나라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부정부패 없는 나라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파라과이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을 알도록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는 권력은 망하면서 끝납니다. 권력은 유혹이 따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그 권력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 10). 이 말씀을 항상 붙들니다.

사회활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외된 아기, 폭력으로 얼룩진 아기를 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노인의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의 손을 느낍니다. 배고픈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음식이 공급된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좋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지극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이것을 위해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밖에는 불쌍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약(부활)에서의 선교의 기초

허버트·케인(J. Herbert Kane) *역자: 김명혁 목사 (강변교회 담임)

여기 실리는 글은 미국 트리니티(Trinity)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 허버트·케인 박사의 저서 <基督教 宣敎의 聖書的 立場>(Christian Missions In Biblical Perspective, Baker Book House, 1976)의 제1부 “宣敎의 聖書的 基礎”(The Biblical Basis of Mission)의 福音書的 基礎를 번역한 것이다. 케인 교수는 15년동안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다

증거의 원동력

(The Dynamic of the Witness)

1 부활의 역사적 사건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에게 파격적인 충격을 주었다. 그들의 세계는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념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았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소망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 그들은 예수께서 세속권력에 큰거한 지상의 왕국을 수립할 것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그는 두 강도 사이에 로마 형 십자가 위에서 생의 종지부를 찍으셨다. 그들은 자기들이 최대의 실수를 범했고 그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 판국에 빈 무덤과 다음과 같은 천사의 선포와 함께 부활절 아침은 밝아왔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으니라.” (마 28:6)

그들의 주님이요 주인이시던 나사렛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이 아닌가! 그가 일찍이 말씀하시던 모든 것이 사실이었구나! 그는 과연 부활이요 생명이셨다. 그는 과연 죽음을 정복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들 자신의 메시야였다. 이 가공할 만한 사건이 그들의 생활과 사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부활의 좋은 소식은 너무도 값진 것이어서 그들만 간직할 수 없었다. 그들은 온 세상에 이 우주적 사건을 알려야만 했다.

2 오순절 성령강림

부활 사건처럼 오순절 사건 역시 독특한 사건이었다. 승천은 한 시대의 종지부를 찍었고 오순절 사건은 또 한 시대의 계시를 알렸다. 물론 오순절 전에도 성령은 세상에 임재해 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사건은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독특한 방식으로 독특한 목적을 위하여 쏟아 부어진 역사적 사건이었다.

부활은 사도들의 메시아 신앙을 회복시키고 강화하였다. 오순절 사건은 그들의 부활 증거를 효과 있게 한 영역을 제공했다. 오직 성령만이 범세계적인 선교 과제를 위해 교회를 무장시킬 수 있었다.

성령만이 교회의 선교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세상을 준비하실 수 있었다.

오순절 사건 없이 사도들 자력으로 활동했다면 결코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을 삼을 수 없

었을 것이다. 부활 사건은 너무도 믿을 수 없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것을 쉽사리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오로지 능력의 성령께서 메신저들에게 충만함으로서 그들은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었을 것이었다(행 1:8).

3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내주

승천은 예수님의 물리적 임재를 이 세상 밖으로 이전시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떠나시기 전에 그들을 위로가 없는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요 14:18). 그는 그들에게 오시겠다고 하셨다. 과연 그는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었다(마 28:20). 그들 속에 그의 거처를 정하실 것이었다(요 14:23). 그는 심지어 그들을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다(요 16:7). 그런데 과연 그러했다.

그는 성령의 인격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의 그와의 사귀는 육체로 계실 때 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값진 것이었다. 과거에 그들은 동일한 지리상의 위치에 함께 있을 때만 그의 임재를 체험 할 수 있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의 임재를 누릴 수 있었다. 그가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엡 3:17). 그는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의 지속적인 임재는 그들의 봉사에 영감을 주었고(행 27:21-25), 그들의 생활을 보호해주었으며(행 10:10), 죽음에 처한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다(행 7:54-60). 그를 떠나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요 15:5). 그러나 그와 함께 있으면 그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빌 4:13). 하늘과 땅, 혹은 지옥의 어떤 권세도 그들을 그의 사랑으로부터 떼어 놓을 수 없었다(롬 8:38-39).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세계를 그리스도에게서 인도하러 나갔으며 그런 일에 있어서 그들은 ‘넉넉히 이겼다’.

증거의 범위

(The Extent of the Witness)

1세기 기독교적 확장에 관하여 우리는 거의 전적으로 사도행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결코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는 않는다. 바울 서신을 보면 누가 기록한 것 보다 복음이 훨씬 더 널리 전파되었던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개요를 설명해 준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 수 있다.

1 교회 전체가 참여한 증거였다.

초대교회의 선교사역은 장로들이나 집사들이나 혹은 사도들과 같은 전문가들에게 일임된 것도 아니었다. 평신도들과 성직자들이 동시에 모두 참여하였다. 초기에 교회 자체가 선교였다. 초대교회의 선교계획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체 위에 기초한 것이었다.

- (1) 교회의 주요임무는 세계 복음화다.
- (2) 이 임무수행의 책임은 교인 전체에게 있다.

초대교회에는 후기의 특징인 조직적인 선교 활동이 없었다. 복음이 평신도들에 의하여 전파되었다.

사도행전을 피상적으로 읽어보면 초대교회의 모든 전도 사업이 전문가들, 즉 사도들과 그 동역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인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복음의 좋은 소식이 평신도들에 의하여 멀고 넓게 전파되었다는 암시를 찾을 수 있다. 그들 대다수가 박해를 피해 여기저기로 도망한 자들이었다(행 8:4, 19:19-20).

2 땅 끝까지 파급된 증거였다.

오순절 사건 이전에 제자들은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왕국’ 개념은 팔레스틴을 넘지 못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예수님은 범세계적으로 생각하셨다. 그들은 오순절 후에 확실히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하여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게 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고(행 8장) 베드로는 유대에 복음을 전했다(행 9장).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로마제국의 동부절반을 커버하였다(롬 15:19). 그들은 스페인까지 서쪽으로 침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롬 15:24).

그들은 어디서나 난관과 위험에 부딪쳤으며(고후 11:23-28), 어느 도시에서나 투옥과 환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므로(행 20:23), 그들 중 수백 명이 그들의 증거에 피로 도장을 찍었다(행 26: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복음의 능력을 계속 증거하였다. 마침내 바울의 말대로 복음의 메시지는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 게 전파’ 되었다.

망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하는 MSO를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월 후원자

◆개인 (1천) 한영덕 (2천) 김권두 (5천) 김용인, 김용진, 김경기, 김태근, 김태웅, 박민주, 박신한, 박현정, 방홍남, 예원혜, 우항영, 이정자, 임이선, 전현우 (06. 12~07. 1), 전호청 (06. 12~07. 1), 정봉룡, 최재호, 최점숙, 최종섭, 허홍범, 홍종진 (1만) 강고은, 강길수, 강선미, 강양순, 강정희, 강진순, 고광남, 고정자, 구창서, 김경미, 김권희, 김기래, 김사웅, 김선옥, 김수미, 김수연, 김영선, 김영이, 김희영, 김용만, 김은영, 김익현, 김중현, 김진걸, 김진석, 김진영, 김찬수, 김중호, 김태구, 김태식, 김희명, 김혜배, 노효석, 두은순, 민승미, 박경진, 박두양, 박범중, 박용수, 박재영, 박종범, 박현근, 박현영, 배기훈, 배영희, 백승현, 변현수, 서영아, 서정기, 성윤정, 송기현, 신경숙, 신성평, 신승봉, 안문숙, 안장섭, 안정선, 양광산, 양항권, 염옥선, 오용섭, 오형재, 우종만, 유경식, 유재혁, 윤병국, 윤재선, 윤종성, 윤현철, 이기찬 (06. 12~07. 1), 이도수, 이병재, 이복순, 이상달, 이상인, 이상현, 이선희, 이성원, 이수호, 이숙우, 이윤문, 이윤우, 이인화, 이재덕, 이재란, 이재원, 이정자, 이정우, 이종근, 이종환, 이종환, 이창연, 임미라, 임일순, 장경옥, 장 봉, 장호근, 전성동, 전승일 (06. 12~07. 1), 전영숙, 전일재, 전재범, 정기정, 정성태, 장성훈, 정영희, 정운식, 정종철, 조경호, 조승연, 조연식, 조용도, 조원일, 조주로, 조준기 (06. 12~07. 1), 주영수, 지태환, 진미정, 진철호, 차성철, 차진애, 채어진, 채영욱, 최기태, 최수용, 최영창, 최종철, 최지용, 한용현, 한현진, 한현철, 허 옥, 허정자, 황경자, 황규연, 황춘자 (2만) 강덕동, 권안도, 권오성, 권오용, 김경재, 김기하, 김무용, 김병욱, 김사목, 김승준, 김영규, 김중필, 김진옥, 김한식, 류정호, 박백안, 박우주, 박종민, 박찬문, 박한두, 복기승(진명회), 손창문, 송고성, 윤재관, 이경선, 이동근, 이숙현, 이원규, 이원목, 이규구, 이천화, 임영빈, 천태일, 천현경, 정기소, 정남기, 정방호, 정완용, 조성문, 차동길, 한희남, 허성화, 황욱정, 황인규 (3만) 김기범, 김덕수, 김덕중, 김언용, 김왕규, 김이라, 리명식, 배유진, 배유규, 오세민, 오재호, 이필섭, 장문석, 정운성, 정원호, 정재연, 조영호, 홍규애 (5만) 김동신, 김영덕, 김위식, 김중득, 남궁환, 안주홍, 유근중, 윤여일, 이갑진, 임만채, 임성민 (10만) 이계실, 이 준, 정길평, 장상현, 황성목

◆교회 및 기관 (5만) 대길교회 (10만) 고천성결교회, 다니엘교회, 무열대학교, 서울여전도회, 서울영동교회, 성덕중앙교회, 수원중앙성결교회, 수성교회, 의무사 MCF (20만) 일원동교회, 충신교회 (50만) 육군본부교회

2월 후원자

◆개인 (1천) 한영덕 (2천) 김권두 (5천) 김용인, 김용진, 김경기, 김태근, 김태웅, 문혜림, 박민주, 박신한, 박현정, 방홍남, 예원혜, 우항영, 이정자, 임이선, 전현우, 전호청, 정봉룡, 최재호, 최점숙, 최종섭, 허홍범, 홍종진 (1만) 강고은, 강길수, 강선미, 강양순, 강점석, 강정희, 강진순, 고광남, 고정자, 곽태웅, 구창서, 김경란, 김경미, 김권희, 김기래, 김사웅, 김선옥, 김수미, 김수연, 김영선, 김영이, 김희영, 김용만, 김은영, 김익현, 김재민(김정애), 김정희, 김중현, 김진걸, 김진석, 김진순, 김진영, 김찬수, 김중도, 김중호, 김태구, 김태식, 김희명, 김혜배, 김희선, 남봉국, 노효석, 두은순, 민승미, 박경진, 박두양, 박래철, 박범중, 박여생, 박용수, 박재영, 박종범, 박현근, 박현영, 배기훈, 배영희, 백승현, 변현수, 서영아, 서정기, 성윤정, 송기현, 신경숙, 신성평, 신승봉, 안문숙, 안장섭, 안정선, 양광산, 양항권, 염옥선, 오용섭, 오형재, 유경식, 유재혁, 윤병국, 윤재선, 윤종성, 윤현철, 이경원, 이기암, 이기찬, 이도수, 이병재, 이복순, 이상달, 이상인, 이상현, 이선희, 이성원, 이소영, 이수호, 이숙정, 이숙우, 이윤문, 이윤우, 이인화, 이재덕, 이재란, 이재원, 이정자, 이정우, 이종근, 이종환, 이창연, 임미라, 임일순, 장경옥, 장 봉, 장호근, 전성동, 전승일, 전영숙, 전일재, 전재범, 정기정, 정성태, 정영숙, 최영희, 최영욱, 최종철, 조경호, 조승연, 조연식, 조용도, 조원일, 조주로, 조준기, 조한나, 조한일, 지태환, 진미정, 진철호, 차성철, 차진애, 채어진, 채영욱, 최기태, 최수용, 최영창, 최정자, 최종철, 최지영, 최지용, 한관수, 한용현, 한현진, 한현철, 허 옥, 허정자, 현자원, 황경자, 황규연, 황춘자 (2만) 강덕동, 강호남 (2만) 강덕동, 공영란, 권안도, 권오성, 김경재, 김기하, 김무용, 김병욱, 김사목, 김승준, 김영규, 김중필, 김진옥, 김한식, 류정호, 박백안, 박여자, 박우주, 박종민, 박찬문, 박한두, 백태중, 복기승(진명회), 손창문, 송고성, 유진혁, 윤문수, 윤재관, 이경선, 이동근, 이명나, 이숙현, 이원규, 이원목, 이규구, 이천화, 임영빈, 천태일, 천현경, 정광식, 정기소, 정남기, 정방호, 정완용, 정이음, 조성문, 차동길, 한희남, 허성화, 황욱정, 황인규 (3만) 권오용, 김기범, 김덕수, 김덕중, 김언용, 김왕규, 김이라, 리명식, 박한진, 배유규, 오세민, 오재호, 이필섭, 장문석, 장혜경, 정운성, 정원호, 정재연, 조영호, 허두철, 홍규애(2~3월), 홍성표 (5만) 권중원, 김동신, 김시호, 김영덕, 김위식, 김중득, 남궁환, 안주홍, 유근중, 윤여일, 이갑진, 임만채, 임성민, 최기우 (10만) 맹창신, 이계실, 이 준, 정길평, 장상현, 정명진, 황성목 (20만) 차운

◆교회 및 기관 (5만) 대길교회 (10만) 고천성결교회, 국방대학교, 남현교회, 노량진교회, 다니엘교회, 무열대학교(2~3월), 서울여전도군선교, 서울영동교회, 성덕중앙교회, 수원중앙성결교회, 수성교회, 신장위교회, 예수사랑교회, 청년세광교회, 흥릉교회 (15만) 예신교회(1~2월) (20만) 세광교회, 일원동교회, 충신교회 (50만) 육군본부교회

◆특별헌금 (5만) 오신기 (10만) 김그레이스, 김복권 (15만) 강덕동, 강한규, 하점례 (20만) 김태구, 문혜교, 이준 (21만) 배현주 (24만) 최지용 (30만) 김옥순, 늘푸른동아리, 배유규 (50만) 정재연 (1,000만) 김중필 (\$200) 벨리하나로교회, 알바인연립문교회 (\$400) 나성열린문교회, 중현선교회 (\$600) 동양선교회

호, 이필섭, 장문석, 장혜경, 정운성, 정원호, 정재연, 조영호, 홍성표 (5만) 김동신, 김시호, 김영덕, 김위식, 김중득, 남궁환, 안주홍, 유근중, 윤여일, 이갑진, 임만채, 임성민 (10만) 맹창신, 이계실, 이 준, 정길평, 장상현, 정명진(1~2월), 최기우, 황성목 (20만) 차운

3월 후원자

◆개인 ◆ 개인 (1천) 한영덕 (2천) 김권두 (5천) 김용인, 김용진, 김경기, 김태근, 김태웅, 문혜림, 박민주, 박신한, 박현정, 방홍남, 예원혜, 우항영, 이정자, 임이선, 전현우, 전호청, 정봉룡, 최재호, 최점숙, 최종섭, 허홍범, 홍종진 (1만) 강고은, 강길수, 강선미, 강양순, 강양순, 강점석, 강정희, 강진순, 고광남, 고정자, 곽태웅, 구창서, 김경란, 김경미, 김권희, 김기래, 김사웅, 김선옥, 김수미, 김수연, 김영선, 김영이, 김희영, 김용만, 김은영, 김익현, 김재민(김정애), 김정희, 김중현, 김진걸, 김진석, 김진순, 김진영, 김찬수, 김중도, 김중호, 김태구, 김태식, 김희명, 김희선, 남봉국, 노효석, 노홍석, 두은순, 민승미, 민찬기, 박경진, 박두양, 박래철, 박범중, 박여생, 박용수, 박재영, 박종범(2~3월), 박한오, 박한근, 박현영, 배기훈, 배영희, 백승현, 변현수, 복창현, 서견식, 서영아, 서정기, 성윤정, 손태중, 송기현, 신경숙, 신미숙(2~3월), 신성평, 안문숙, 안장섭, 안정선, 양광산, 양항권, 염옥선, 오용섭, 우종만(2~3월), 유경식, 유재혁, 윤병국, 윤재선, 윤종성, 윤현철, 이경원, 이기암, 이도수, 이병재, 이복순, 이상달, 이상현, 이선희, 이성우, 이성원, 이수호, 이숙정, 이숙자, 이윤문, 이윤우, 이은수, 이은규, 이인화, 이재덕, 이재란, 이재원, 이정자, 이정우, 이종근, 이종환, 이창연, 임미라, 임일순, 장경옥, 장 봉, 장호근, 전성동, 전승일, 전영숙, 전일재, 전재범, 정기정, 정미현, 정민우, 정성태, 정영희, 정영욱, 정종철, 조경호, 조승연, 조연식, 조원일, 조주로, 조준기, 주영수(2~3월), 지태환, 진미정, 차성철, 차진애, 채어진, 채영욱, 최기태, 최수용, 최영창, 최재경, 최종철, 최지영(2~3월), 최지용, 하철수, 한관수, 한용현, 한현진, 한현철, 허 옥, 허정자, 현자원, 홍미경, 황경자, 황규연, 황호남 (2만) 강덕동, 공영란, 권안도, 권오성, 김경재, 김기하, 김무용, 김병욱, 김사목, 김승준, 김영규, 김중필, 김진옥, 김한식, 류정호, 박백안, 박여자, 박우주, 박종민, 박찬문, 박한두, 백태중, 복기승(진명회), 손창문, 송고성, 유진혁, 윤문수, 윤재관, 이경선, 이동근, 이명나, 이숙현, 이원규, 이원목, 이규구, 이천화, 임영빈, 천태일, 천현경, 정광식, 정기소, 정남기, 정방호, 정완용, 정이음, 조성문, 차동길, 한희남, 허성화, 황욱정, 황인규 (3만) 권오용, 김기범, 김덕수, 김덕중, 김언용, 김왕규, 김이라, 리명식, 박한진, 배유규, 오세민, 오재호, 이필섭, 장문석, 장혜경, 정운성, 정원호, 정재연, 조영호, 허두철, 홍규애(2~3월), 홍성표 (5만) 권중원, 김동신, 김시호, 김영덕, 김위식, 김중득, 남궁환, 안주홍, 유근중, 윤여일, 이갑진, 임만채, 임성민, 최기우 (10만) 맹창신, 이계실, 이 준, 정길평, 장상현, 정명진, 황성목 (20만) 차운

◆교회 및 기관 (5만) 대길교회 (10만) 고천성결교회, 국방대학교, 남현교회, 노량진교회, 다니엘교회, 무열대학교(2~3월), 서울여전도군선교, 서울영동교회, 성덕중앙교회, 수원중앙성결교회, 수성교회, 신장위교회, 예수사랑교회, 청년세광교회, 흥릉교회 (15만) 예신교회(1~2월) (20만) 세광교회, 일원동교회, 충신교회 (50만) 육군본부교회

◆특별헌금 (5만) 오신기 (10만) 김그레이스, 김복권 (15만) 강덕동, 강한규, 하점례 (20만) 김태구, 문혜교, 이준 (21만) 배현주 (24만) 최지용 (30만) 김옥순, 늘푸른동아리, 배유규 (50만) 정재연 (1,000만) 김중필 (\$200) 벨리하나로교회, 알바인연립문교회 (\$400) 나성열린문교회, 중현선교회 (\$600) 동양선교회

* 영수증을 대신하여 후원내용을 본 란에 실습니다. 착오나 문의사항이 있거나 별도의 영수증 또는 본회 CMS용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지요.

MSO후원 출금 이체 신청서(CMS)

회 원 명		
전 화 번 호	자택	핸드폰
주 소		
*은 행 명	*통장구분	<input type="checkbox"/> 개인통장 <input type="checkbox"/> 법인통장
*예 금 주	*주민(사업자)번호	
*계 좌 번 호	*월 후원금	
*출 금 일 자	매월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기간 <input type="checkbox"/> 1년 <input type="checkbox"/> 2년 <input type="checkbox"/> 3년 <input type="checkbox"/>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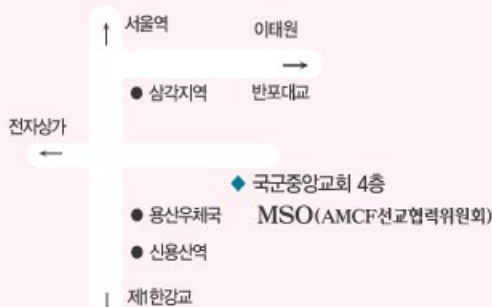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 임

- ◆ 무통장 입금 계좌번호 (예금주: 배유규)
 - 국민은행 477401-01-079703 · 우리은행 1002-629-510072 · 농협 094-12-149224 · 우체국 010025-02-233906
- ◆ 지로입금: 지로 번호 7672266 MSO (AMCF선교협력위원회)
- ◆ 문의전화: 일반) 02-795-6225, 797-6763 / 군) 900-4091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

2007년 MSO 월별 주요사역

월별	일자	사역내용	국가 / 장소
1	12~13	MSO 임원수련회	광림수도원
	10~11	Accts MMI 수련회 참가	영국
2	12~26	중양아시아 집회 참가/지원/방문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16~24	중국 선교방문	서안지역
3	4	MSO 헌신예배	국군중앙교회
	19~28	ACCTS Meeting & FCMM회의 참가	미국 덴버
	3월중	미주 한인교회 방문	미국 중서부
4	3월중	EC 및 PC교육용 장비지원	캄보디아, 부르키나파소
	4월중	PC 교육용 장비지원	타지키스탄, 중국
5	4월중	중동지역 Retreat 참석/지원	사이프러스
	25~27	몽골 MCF 10주년 대회 참석/지원	울란바타르
6	5월중	영어캠프 협력기관 방문	한국 내 협력기관
	6월중	Accts MMI 회의 참가	영국
7	18~25	MEO 프로그램 실시	12개국 초청
	21~23	6·25기독장병 구국성회 참가	오산리기도원
8	2~21	캄보디아 2개 부대 EC 실시/지원	Udong부대, 911특전부대
	15~30	러시아 극동지역 EC 실시/지원	블라디보스톡
	7월중	라틴아메리카 국가 EC 실시/지원	중남미 국가
9	7.30~8.10	캄보디아 2개부대 EC 실시/지원	11공수, 기갑사령부
	16~19	AMCF 중미지역대회 참가/지원	파나마
	8월중	부르키나파소 2개부대 EC 실시/지원	와가두구, 보보
10	8월중	앙골라 공군부대 EC 실시/지원	루방고
	20~26	AMCF 태평양지역대회 참가/지원	호주 브리즈번
11	9월중	ACCTS 회의 참가	미국 덴버
	9월중	Cyber University 개설	MSO CU팀
12	16~18	AMCF 동아시아지역대회 참가/지원	대만 대북시
	21~11.4	미국 Interaction 참가	White Sulfur Springs
연중계속	11월중	세계 군선교 사역보고대회	육군회관
	12월중	2007 사역결산 및 2008 사역계획	MSO
연중계속	매월 첫주(수)	군선교 유관기관 연합조찬예배	국군중앙교회
	매주(목)	MSO 목요임원기도회 및 P&P	국군중앙교회
	매분기 첫월	MSO 뉴스레터 발간	MSO
연중	연중	주한 외국군 유학생 선교	각군 군사대학



우) 140-600 서울 용산구 용산동 용산우체국 사서함 9호
 국군중앙교회 4층 MSO (AMCF 선교협력위원회)
 ☎ 02-795-6225, 797-6763 / 748-4091
 팩스 02-797-6764
 Email: mso2004@paran.com
 http://mso.or.kr